

# 경영저널

COVER STORY 이현준 예천군수

예천특집 도청이전 예천 경북중심도시로 자리매김

Hot Issue 활의 고장 예천, 오는 10월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특집 민생 6기 출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꽃 활짝 피워야"

Economy 대구·경북 소손권 교환액 소폭 증가

정책 경북도, 민선 6기 도정 슬로건 '사람중심, 경북세상'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사과 재배면적 감소세 확연

음식명가 생고기·찜요리 전문점 '큰뚜레'

메디컬 일광화상과 광노화

특집 한·중FTA 한·중FTA 협상 금물살

48th  
2014 8

CLICK

# e-비즈니스

##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 기업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 16
- 07 **청호(靑湖)칼럼**  
선비정신 본받고 배우자
- 08 **Special Section**  
동신새마을금고 내실경영 주목
- 12 **Cover Story**  
이현준 예천군수  
“군민과 예천 발전위해 최선 다하는 참일꾼 될것”
- 16 **예천 특집**  
도청이전 예천 경북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기대  
곤충산업 경쟁력 전국 지자체 중 최고
- 18 **예천 가볼만한 곳**  
천년고찰 용문사, 비경 회룡포
- 20 **예천 핫이슈**  
활의 고장-예천, 오는 10월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 22 **예천 특산물**  
‘참우’ ‘참기름’ ‘쌀’ 전국적 명성
- 24 **특집**  
민생 6기 출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꽃 활짝 피워야”
- 26 **Economy**  
대구 · 경북 소손권 교환액 소폭 증가
- 28 **칭찬합시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여승동 사무관



# 한국경제기획연구원<sup>은</sup>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재정타당성 전문연구원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30 **기업탐방**  
(주)에코텍, 대구 대표 첨단 영상관제업체로 부상
- 32 **이슈 앤 이슈**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 34 **포커스 리딩**  
원화 강세지속, 지역수출기업 재산성 악화 '울상'
- 36 **정책**  
경북도, 민선 6기 도정 슬로건  
'사람중심, 경북세상' 으로 확정
- 38 **사회**  
대구 거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
- 40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대구·경북 사과 재배면적 감소세 확인
- 42 **출동 현장속으로**  
안심 연료단지 주변 주민 28명 진폐증 확인
- 44 **음식명가**  
생고기·찜요리 전문점 '코뚜레'
- 48 **메디컬**  
일광화상과 광노화
- 50 **지자체는 지금**  
상생기금 갈등 非수도권 지자체 판정승
- 52 **특집 한·중FTA**  
한·중FTA 협상 급물살
- 54 **지역소식**

## 경영저널 통권 제48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서기대
취재	배은정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류영철
편집위원	백재호, 홍순대, 서용준 윤정현, 민경량
광고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6-8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산 053) 811-2820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 금 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 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7<sup>th</sup> World Water Forum  
Daegu & Gyeongbuk, Korea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대구 EXCO,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

The World Water Forum is the world's largest meeting on water and is organized every three years by the World Council. The 7<sup>th</sup> World Water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cure and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build a water-secure future.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7th World Water Forum 2015



# 선비정신 본받고 배우자

한 나라의 이미지는 그 나라의 국격으로 회자된다. 한 국가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곧 국가 브랜드로 작용하고 국격의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바라볼까. 6·25 전쟁을 떠올리는 가하면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국가로 기억할지 모른다. 가난에서 부를 창출한 나라, K-팝 등 한류 기반의 문화강국, 여자들이 골프를 잘 치는 나라, 자동차, 텔레비전을 잘 만드는 나라로 인식할지도 모른다.

역사적 관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가르치고 함양하며 따랐던 민족성 근거에 선비정신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선비는 성리학이 꽃을 피운 조선의 시대정신을 표현할 때도 곧잘 인용되곤 한다. '선비의 나라' 조선에서 정치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에 의해 이뤄졌고, 고급관리는 도덕공부를 많이 한 선비 중에서 과거를 통해 중용됐다. 지방에서도 무관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글을 읽은 선비가 주도하는 향약(鄕約)을 통해 자치의 풍속이 이뤄졌다. 이 뿐만 아니라 두메산골에서도 선비정신은 융성했다. 문사철(文史哲)의 교양을 쌓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고 서당이 교육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집집마다 서적이 넘쳐났고, 마을마다 문집 출간이 활발했다.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간직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 정치 후진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비쳤다. '친일사관' 논란에 휩싸여온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은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란 불명예를 안았다.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중도에 하차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장대한 총리 서리가 끝내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때의 두 총리 서리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까지 갔지만 안대희·문창극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검증대에 서보기도 전에 중도하차한 점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다.

두 총리 후보자의 씩씩한 퇴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최소한

선비정신만 있었다라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선시대 선비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지식을 사랑하며 남에게 인자한 동시에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에는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구절이 있다. 이익이 보이면,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도리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매사에 이해 관계를 따지는데 능하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손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옛 선비는 먼저 옳으나, 아니냐를 따졌고 옳지 않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견리사의'의 이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본받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고위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비춰진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을 만한 인물을 찾는 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비단 국무총리 인선과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2기 내각 인선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자신에게 엄격했던 옛 선비들이 품은 삶의 태도를 곱씹어 봐야한다고 본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공과사를 분별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 남에게 인자하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도 안다. 따라서 선비정신을 품은 인재를 중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지구촌 곳곳으로 번져가는 새마을 운동처럼 그 가치는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선비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그 정신을 본받고 배우는데 힘썼으면 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발행인

# 동신새마을금고

## 내실경영 주목

비영리법인 동신새마을금고가 대구를 대표하는 제2금융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동신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구 대표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동신새마을금고는 이를 위해 투명성 제고를 기반으로 정도(正道)경영을 지향하고 새마을금고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지속적 외형 성장세 주목

동신새마을금고의 내실 경영은 최근들어 지역 금융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적 외형 성장세에 부러움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7월 현재 동신새마을금고는 총 자산 1천14억원, 회원수 1만3천명으로 외형이 확대됐다. 지난 2004년 기준 동신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은 295억 원에 불과했

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자산 규모만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연체비율 또한 고작 0.12%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1천39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3.18%에 달한다. 연체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량 대출이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제액도 지난 2005년 300억원에서 2007년 500억원에 이어 2013년 1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7월 현재 동신새마을금고의 공제액 규모는 1천3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자산, 공제액, 연체비율 측면에서 대구를 넘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내실경영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다.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5월 기준 전국 1천398개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은 113조1천357억원으로 집계되며, 이 중 새마을금고 한 곳 당 평균 자산은 809억2천700만 원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111개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은 8조1천796억원, 새마을금고 한 곳 당 평균 자산은 736억9천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평가된다. 전신(前身)은 지난 60년대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마을금고다.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명칭이 바뀐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

### 고객 최우선 친서민 금융기관 우뚝

동신새마을금고는 7월 현재 백태진 이사장을 포함해 임·직원 13명이 몸담고 있다. 동신새마을금고의 눈부신 성장세의 원동력에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도(正道)경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한 차별화 내실경영의 성공 사례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동신새마을금고는 '회원을 하늘같이 모신다'란 슬로건을 모토로 새마을금고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사장 직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회원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 고객과의 소통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객을 주인처럼 떠받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신새마을금고는 아울러 회원 수익 및 권익보호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연초 결산배당내역을 확정하고 정회원 7천141명에게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대의원 총회에선 2013년 결산배당률을 3.3%로 책정하고 출자금에 따라 배당금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동신새마을금고 회원은 크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1구좌 당 1만 원을 출자한 회원을 뜻한다. 정회원에게는 대의원 선출권 등의 권리가 부여된다. 반면 준회원은 클 틀에서 예금주, 고객 전체를 의미한다. 고객은 그래서 회원인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

### 활발한 지역사회공헌사업 눈길

동신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고객 중심의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환원 및 공헌사업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동신새마을금고 9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이 대표적이다. 현재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교실에는 요가를 비롯해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다이어트방송댄스, 트로트댄스, 가요교실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나눔 사랑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좀도리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좀도리운동은 일반 회원들로부터 쌀을 기탁받아 신암2동주민자치센터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사랑의 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되고 있다.

경로잔치 후원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토해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어버이 날을 맞아 신암2동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열린 경로잔치에 500만원을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동신새마을금고의 지역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신암동 일대 경로당에 떡국과 수박, 백미 등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용 소화기를 구입해 화재 취약층인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도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 중·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해 학생 1인당 30만원 씩 지원하고 있는 등 장학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서민 곁으로 다가서는 친서민 금융기관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밑받침 역할을 맡겠다는 동신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신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지역 사랑은 백태진 이사장이 걸어온 길과도 일맥 상통한다. 대구가 고향인 백 이사장은 다방면에 걸쳐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대구시협의회장을 비롯해 대구시 명예 감사관, 대구시 여론 모니터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몸소 실천한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백 이사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새마을 훈장 근면장을 비롯해 대통령상, 새마을봉사상, 새마을금고중앙회장상 등을 다수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이래 그동안 대의원 추대 등을 통해 3선에 성공하며 10년 째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백 이사장은 동신새마을금고의 외형 확대 결실의 숨은 공로를 회원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 그리고 임·직원들의 노고로 돌리고 있다. 권위주의를 떨쳐 버리겠다는 겸손한 성격이 묻어난다.

백태진 동신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금고 조성을 위해 고객 신뢰 기반의 투명경영을 통한 외형확장에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고객들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 | 서기대 편집장  
사진 | 김원현 기자

# | 인터뷰 | 이 현 준 예천군수



## Profile

- 1955년 경북 예천군
- 예천 대참고
- 단국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학사
-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제5대 예천군수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 “군민과 예천 발전위해 최선 다하는 참일꾼될 것”

민선 5에 이어 6기 재선 단체장인 이현준 예천군수는 본보와의 대담을 통해 오직 군민과 고향 예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도청 이전을 앞두고 예천을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맞춤형 복지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늘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선진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신도청시대를 맞아 예천을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Q 민선 5기 주요 평가에서 많은 상을 휩쓸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국내를 넘어 세계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2012 예천곤충 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야말로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가장 뜻 깊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일간 진행된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서는 85만 명을 웃도는 관람객이 다녀가고, 1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곤충 학회에서도 '세계 최고의 곤충산업 축제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주었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상복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경북도 농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균형집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대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육상실내연습장을 비롯한 경사로 훈련장을 새로 만들어 매년 1만 명이 넘는 선수들이 훈련지로 예천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국단위 육상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600여 공직자와 5만여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힘을 합쳐 거둔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 Q 예천군의 복지 시책에 대해선

A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및 보편적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선진 복지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과 장애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시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사회 안전망 확충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예천군은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을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잠자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선진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를 보듬는 복지사업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회참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장애우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천군은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해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주고 있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어린이 다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 취약 가정 아



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는 등 소외계층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행복한 살기 좋은 복지고장 예천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Q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귀농귀촌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천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한다면**

**A**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가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현상은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경우 최근 5년 새 397가구, 844명이 귀농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예천군은 귀농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귀농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엔 전담부서인 귀농지원T/F팀을 설치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귀농지원센터를 별관에 마련해 전담 상담사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의 귀농인 지원사업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 1월에는 예비 귀농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한 데 이어 4월에는 귀농지원센터를 구축해 귀농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수리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착 단계에선 정착지원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귀농인이 창업에 나설 경우 농업창업자금 명목으로 연리 3%에 최고 2억 원을, 농가주택 신축 시에도 연리 2.7%에 최고 5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Q 조만간 도청 이전이 본격화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경북도청과 함께 130여 공공 및 유관기관이 완전 이전한다면 예천은 명실상부한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도청은 내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완전 이전, 개청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단은 올 연말부터 이전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앞서 예천군은 현재 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 1천287세대 가운데 분양률만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3천700여 세대를 추가 분양해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예천의 장밋빛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읍지역 도심에 '맛 고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한천 고향의 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동시에 도청 신도시간 직통도로 개설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Q 오는 10월 예천에서 열리는 '세계 활 축제'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예천출신으로 고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학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궁장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예천양궁 또한 올림픽은 물론 세계 대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당시 예천여고 3학년생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에서 대회 5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 예천군청 실업팀 소속인 윤옥희·김수영·장용호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처럼 예로부터 활과 많은 인연을 지닌 고장으로, 국궁뿐만 아니라 양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 축제' 개최를 위해 지난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예천 세계 활 축제'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천지역의 우수한 활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활 축제'를 연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이번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예천 세계 활 축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한천체육공원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질니

다.

국궁체험을 비롯해 양궁 및 필드아치리 체험, 각종 활 관련 공연 및 이벤트, 활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천 세계 활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예천은 곤충의 고향으로도 도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곤충산업은 21세기형 성장 동력으로 농업분야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군인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범위와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어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곤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선 미래 식량자원으로도 연구가 활발한 추세입니다.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시장 규모만 오는 2020년이면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에 처음으로 나선 이래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 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 방편으로 연구 및 전시는 물론 생산과 마케팅에 이어 생태관광까지 가능한 기반시설인 예천곤충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곤충산업 경쟁력은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열린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서도 대내외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Q 이제 민선 6기 시작인데 앞으로 예천군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계획에 대해선**

**A** 경북도청이 조만간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군민들의 삶의 수준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10만의 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행정, 문화, 교육, 산업이 조화를 이룬 명품 신도시 반열에 오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병행해 기존의 예천읍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둔 군정도 펼쳐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생동(生動)하는 창조경제 실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군민의 휴식과 치유 공간 제공을 위한 한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쉼터, 자전거도로, 음악분수 등 옛정취와 추억이 흐르는 명품하천으로 만드는 한편 낙동강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강 문화 체험장을 구축하고 삼강주막과 회룡포, 도청 신도시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의 대표적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업인이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주변지역에 신선채소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등 농업분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과 함께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은 물론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예천교육의 화려했던 옛 명성도 되찾겠습니다.

우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군립 도서관을 건립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군민장학회의 인재양성원에 대해선 유명 강사를 초청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입소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천년고찰 용문사 주변을 관광자원화하고 회룡포와 곤충생태원, 금당실마를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전국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육상 전지훈련장에 최신식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상 전지훈련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활의 고향' 예천의 이미지를 살린 '예천 세계 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예천곤충엑스포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군민만을 위하고 예천발전만을 위해 헌신하는 밑일이 되겠습니다.

서기대 편집장

# 예천

## 도청 이전 예천 경북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기대

### 곤충산업 경쟁력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예천군이 도청이전에 따라 경북의 새 중심도시로 거듭날 기세다. 예천군은 우선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되는 도청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130여 공공 및 유관기관의 연계 이전 등에 따라 도청이전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은 이와 별개로 '곤충산업 선도 지자체'로도 평가받고 있다. 예천군의 곤충산업 경쟁력은 이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예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알아본다.

#### 예천, 신도청시대맞아 경북 중심도시로 급부상

예천군은 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경북의 새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경북도청은 내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예천과 안동지역으로 이전, 개청한다. 실제로 도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지역 사회 안팎에선 분석하고 있다. 도청과 함께 130

여 공공 및 유관 기관이 순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천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구 유입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대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역점 시책으로 삼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세수 증대 등 지자체 경쟁력의 잣대로 평가되는 이유에서다.

예천은 도청 이전 1년여를 앞둔 7월 현재 신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도 점차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도청이전신도시 공동주택 1차 사업 기준으로 7월 현재 3개 단지 평균 분양률은 94%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우방아이유셀 B4-2블럭과 B5-1블럭의 경우 각각 100% 분양을 완료하는 기쁨을 토해냈다.

도청이전신도시 공동주택 1차 사업 추진에 따른 아파트 공급 물량은 1천300세대에 달하며 입주하는 오는 201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을 받은 예비 입주세대의 실거주지를 살펴보면 예천은 9%에 그친 반면 대구 34%, 안동 29% 등 역외 거주자가 91%를 차지했다는 게 예천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예천으로의 인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는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예천지역에는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5천여 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인구 유입효과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천군 측은 내다보고 있다.

예천군은 이에 따라 신도시 등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국비 등 사업비 1천63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예천읍과 도청 신도시를 잇는 직선도로(8.5km) 조성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읍지역 도심에 '맛고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신도시 입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작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곤충산업 전국 최고 경쟁력 확보 '눈길'

예천군은 이와 함께 곤충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전국의 농촌지역 지자체 가운데 단연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예천군이 곤충산업에 눈을 돌린 것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상에 번성 중인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에 접목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곤충산업은 21세기형 성장 동력 유망산업 중 하나로 농업분야의 대표적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 5천억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에는 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천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대표적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 곤충연구소 개소·운영

예천군은 이에 따라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구 및 전시는 물론 생산과 마케팅에 이어 생태관광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곤충연구소를 개소, 운영중에 있다.

예천곤충연구소의 3대 역점사업은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 △꿀벌육종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꿀벌 교배종 개발 및 농가 보급 △전문인력 양성으로 압축된다.

예천곤충연구소는 이를 위해 15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호박벌특화센터를 설립하고 화분매개곤충인 호박벌을 대량 생산하는 동시에 농가 보급에 전력을 쏟고 있는 등 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규모만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꿀 수집능력이 뛰어난 꿀벌 교배종 개발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꿀벌육종연구센터에서 맡고 있다. 꿀벌육종연구센터에 따르면 여왕벌 인공수정을 통해 순계를 분리해 꿀 수집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73%까지 꿀 수집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꿀벌육종연구센터 측은 지역적응시험과 대량증식체계를 구축해 정부 장려품종으로 등록하고, 원종보존소로 지정받아 전국에 걸쳐 우수 여왕벌을 보급할 경우 양봉농가의 연간 소득만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곤충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곤충사관학교를 개설,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곤충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대대적 투자를 토대로 예천의 곤충산업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곤충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겠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 천년고찰 용문사,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아름다움 회룡포 등 관광명소 즐비

‘충효의 고장’ 예천에는 곳곳에 역사문화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다. 올 여름 예천을 찾았다면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천년고찰 용문사와 삼강주막, 회룡포는 예천군 문화관광과에서 추천하는 예천을 대표하는 3대 관광명소다. 〈편집자 주〉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에 위치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 10년(870)에 두운대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대표 천년고찰 중 한 곳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예천군의 관광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백산 기슭의 용문사에는 사찰 예술의 진목면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가 유난히 많다. 맞배기와 지붕의 균형미를 보여주는 대장전(보물 145호)은 고려 명종 3년(1173)에 초건한 당대 최고 목조건물이며, 윤장대(보물 684호), 목불좌상·목각탱(보물 989호), 사천왕상 일주문 등도 불교 예술의 진수로 평가된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삼한 통합의 큰 뜻을 품고 두운대사를 방문하고자 동구에 발을 딛는 순간 갑자기 바위 위에서 쌍용이 나타나 절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고 한다. 이에 태조는 이 산을 용문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절이름을 용문사라 명명했다고 한다.

용문사 측은 지난 2006년 성보유물관을 준공하고 총 190여점의 불교유물을 수장, 전시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회전식 불경보관대인 윤장대 모형도 제작 설치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사찰 주변엔 예천권씨종택과 초간 권문해 선생이 건립한 초간정도 지척 거리에 있다.

풍양면에 위치한 삼강주막도 예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손색없어 보인다. 삼강은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맑은 물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룬다. 예로부터 이 곳은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장사 배들이 낙동강을 오르내렸고, 문경새재를 가기 전에 이 곳 나루터를 꼭 거쳐 갔아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상거래가 융성했다고 한다.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주막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인근엔 500년이 넘는 회화나무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예천군 용궁면을 찾았다면 회룡포를 빠트리면 안 될 것 같다. 강이 산을 부둥켜안고 웅틀임을 하는 듯 한 특이한 지형을 지닌 회룡포는 가장 먼저 한삼만 뜨면 섬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슬이슬한 ‘물도리마을’에 시선이 고정된다.

여기에서 마을을 감싸 흐르는 맑은 물은 물론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지난 2000년 방영된 KBS 인기드라마 ‘가을동화’의 초기배경이 이 곳 회룡포여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예천군 측은 전했다.

인근의 비룡산은 숲속 등산로와 원산성, 봉수대 등 역사적 정취가 살아숨쉬는 자연공원으로 산책과 등산코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배은정 기자



# 활의 고장 - 예천

## 오는 10월 '예천 세계 활 축제' 개최 범국민적 관심 집중



예천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국궁(國弓)뿐만 아니라 올림픽은 물론 세계 각종 대회를 휩쓸고 있는 양궁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예천군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활을 주제로 문화축제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오는 10월 열리는 '예천 세계 활 축제'에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 예천, 자타가 인정하는 '활의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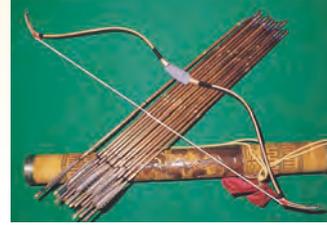
예천은 예로부터 활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국궁뿐만 아니라 양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활의 고장'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권영학 선생은 예천이 낳은 우리나라 대표 공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현재 고향 예천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공장 권무석 선생도 예천 출신으

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궁기능보유자로 주저 없이 꼽힌다. 이뿐 아니라 국내 공장 대부분이 예로부터 예천에서 전통방식대로 전해지고 있는 활 제작 기법을 전수받아 국궁제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되는 활은 연간 국내 국궁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예천군은 밝혔다.

우리나라 국궁의 맥은 이처럼 예천이 중심이 되고 있다. 예천군은 옛 선조들의 전통 활터였던 무학정에서 매년 활쏘기대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개관한 국궁전수관에서는 전통



활제작 기법을 계승·보전하고 있다.

### ‘예천양궁’, 올림픽 및 세계 선수권 석권

우리나라 양궁역사도 예천이 중심이 돼 새 장을 쓰고 있다. 올림픽은 물론 굵직한 세계 대회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점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예컨대 지난 1979년 당시 예천여고 3학년생이었던 김진호 선수는 독일 베를린세계양궁선수권에서 대회 5관왕을 거머쥐며 우리나라 양궁역사를 새로 쓴 입지적 인물로 평가된다. 예천군청의 활약도 올림픽 때마다 지속되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윤옥희·김수영·장용호 선수 등이 예천군청 실업팀 소속의 대표적 양궁 선수로 이름이 높다.

‘예천양궁’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데는 아낌없는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 것은 ‘예천 양궁’의 대표적 경쟁력 중 하나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를 개최한 예천진호국제양궁장만 하더라도 매년 10여 차례의 전국 대회가 열리고 있는 등 국내 양궁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대표 상비군뿐만 아니라 국내 실업팀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 양궁팀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우수한 시설을 갖춘데 따른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 국내 최초로 활 주제 축제 개최

예천군은 민선 6기 들어 ‘활의 고장’ 예천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축제 ‘세계 활 축제’ 개최를 통해서다. 활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예천군에 따르면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는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한천체육공원과 남산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곤충나라 클린 예천농산물대축제·예천참우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국궁과 양궁체험을 할 수 있고 활 관련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한편 활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축제를 지향하는 동시

에 방문객 참여형 문화축제로 선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천군은 ‘세계 활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오랜시간에 걸쳐 준비작업에 내실을 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활 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예천군의 노력도 도드라지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세계 활 축제’ 개최 타당성 연구영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올 3월엔 지역 유력 일간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 개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최근 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이번 축제 주제를 ‘예천 활, 세계를 향해 시위를 당기다’로 정하고 ‘활을 쓰자! 꿈을 명중시키자’란 슬로건을 발표하는 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활을 소재로 문화축제를 준비 중인 예천군은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필드아치리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해외 벤치마킹에도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윤여홍 예천군 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벤치마킹단은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일본 아이치현 세토시의 조코지 필드아치리 경기장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예천 세계활축제 기간 중 남산공원에 조성되는 필드아치리 경기장을 두고 관련 선진국인 일본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드아치리는 숲 속을 걸으며 활을 쏘거나 짐승 모양의 입체 표적을 맞히는 스포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생활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예천군은 이와 별개로 군민들의 축제 참여 확대를 위한 활쏘기 붐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무학정에서 활(국궁)쏘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예천 세계 활축제’를 앞두고 군민들의 참여 열기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헌준 예천군수는 “‘활의 고장’ 예천의 전통과 맥을 잇는 노력을 앞으로 한층 강화할 것”이라면서 “‘세계 활 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은정 기자

# 청정고장 예천 '참우' '참기름' '쌀' 전국적 명성



경북 내륙지역에 위치한 예천군은 도내 대표적 청정지역에 뽑힌다. 백두대간 소백산이 자리하고 내성천 등을 중심으로 1급수 서식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등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예천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의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예천을 대표하는 농축산물로는 참기름, 한우, 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예천참깨'는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지역 참깨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210ha 규모로 집계된다. 주로 내성천을 따라 재배 분포도를 지닌다고 예천군 농정과 관계자는 전했다.

'예천참기름'은 국립농산물검사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참깨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우수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가공식품 제조업체 품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재료선정과정을 거쳐 최신자동시설 기반의 위생적 생산 시스템을 통해 진유(眞油)만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예천군은 밝혔다. 최고급 참기름의 대명사로 시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예천은 아울러 한우의 맛과 품질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예천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7월 현재 4만6천두를 헤아린다. 사육농가수로는 2천 260여농가에 달한다. 이렇게 사육된 한우는 '예천참우' 브랜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예천참우'의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은 미생물 발효 첨가제를 사료와 함께 먹여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안전성 확보 축산물로 사육되는데 있다. 여기에서 살코기 내 마블링 형성이 잘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도 자랑한다. '예천참우'는 무엇보다 국내 축산물시장에서 육질이 우수한 최고급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예천은 이와 함께 예로부터 쌀의 고장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과거 용궁면 일대에서 수확된 쌀은 임금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밥맛이 뛰어났다고 예천군 측은 귀띔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브랜드는 '예천특미옹골진쌀'과 '맥반쌀' 등이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다. 주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백화점에서도 시판되고 있다. 고급미(米) 브랜드로 인지도를 얻고 있는 셈이다. 예천 쌀의 품질이 우수한 것은 비옥한 토질과 함께 맑은 물과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예천지역의 쌀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1만40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천군 농정과 관계자는 "예천은 명실상부한 경북을 대표하는 청정지역"이라면서 "땅이 비옥하고 자연재해 발생이 적은 데다 공기 좋고 물이 맑은 덕분에 예천에서 출하되는 일등급 농축산물은 전국적 인지도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배은정 기자

# 안심 파트너! 온:캣!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HD화질로 생생하게!  
혼자 있는 어린 자녀, 부모님, 반려동물까지 온:캣으로 지켜주세요.



**24시간 LIVE로 만나는 영상보안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ON:CAT!**

**약정 후 무상양도까지!**

**똑똑하고 실속도 잡는 온:캣 패키지**

CCTV+방범보안+안심보험을 결합한 최첨단 영상보안관제시스템, 온:캣!  
온:캣 패키지로 불안함도 잡고, 실속도 팍 잡으세요!



**불안을 남겨두지 마세요!**

- 100만 화소의 선명한 HD화질
- 적외선 실시간 감시 기능으로 야간감시 가능
- 좌우 350도, 상하 120도의 넓은 감시각도
-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 푸쉬 전송
-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쌍방향 음성 통신
- 실시간 저장 및 스케줄링 기능

# 민선 6기 출범

##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꽃 활짝 피워야”

민선 6기가 7월 1일 닷을 올렸다. 지난 1995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 1기 출범 이래 20년 만이다.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주민자치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도민들이 주인되는 성숙한 주민자치시대를 꽃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이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선 풀어야 할 현안 과제 또한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물론 단체장의 인사 정황, 주민 참여 결여 등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중앙정부 의존형 지방자치시대 지속

20년 역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 현주소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따른다. 지방정부 부채의 경우 100조원을 웃돌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만 하더라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자체적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한 재원이 전체 예산의 5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형적 형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열악한 재정 여력 탓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추진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중앙정부 의존형’ 지방자치시대가 민선 1기 출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국고 보조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정 재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세출 비중은 대략 4대 6 수준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까지 확대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지자체 건정 재정 확보를 위해선 국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를 늘리는 쪽으로 재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 자원 확대 탓 신규 사업 엄두 못내**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투입해야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손질해야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비 규모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반발기류로 보인다.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2조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만 57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관련 예산은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60조 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

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에서 재정 압박을 호소하는 데는 최근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도 한 몫하고 있다. 복지 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선 지자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일부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 복지 예산 증가로 효율적 예산 배분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외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온다.

**단체장 인사 전횡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

지방자치시대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선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사 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선 지자체 출범이후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면서 인사 과정 전반에서 속칭 '줄세우기·자기 식구 심기' 논란이 속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런 병폐를 없애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견해로 비춰진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게 청탁이 만연될 수 있고, 능력보다는 단체장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인물이 중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대해 서둘러 매스를 대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문제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심사 절차 및 기준 등을 공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정보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인사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참여형 인사위원회의를 열어 검증 작업을 거칠 경우 주민의 표로 당선된 단체장이 인사권 행사에 앞서 한 번 더 숙고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

서용준 편집위원

# 대구·경북 소손권 교환액 소폭 증가 화폐 환수율은 50%대로 추락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바꿔준 소손권 교환실적이 6천 5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손권은 화재, 훼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화폐 가치를 상실한 은행권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올 상반기 소손권 교환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의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은 각각 1조6천968억 원, 9천 805억 원으로, 환수율 57.8%를 기록했다.



## 올 상반기 소손권 규모 전년 같은기간 보다 소폭 증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교환해준 소손권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건 증가한 403건, 이 기간 금액으로는 180만원 늘어난 6천 54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손권 교환건수와 금액은 각각 6.3%, 2.8%씩 늘어난 것이다. 다만 평균 교환금액은 16만2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천 원(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사유별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이 2천800만 원(96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42.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칼·가위 등으로 잘게 잘린 경우 1천840만 원(106건), 장판 밑에 눌린 부패가 980만 원(100건)으로 조사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 권이 3천220만원으로 전체 교환 실적의 49.2%를 차지했고 5만원권 3천만 원(46.3%), 1천 원권 170만 원(2.6%), 5천 원권 120만 원(1.9%) 등의 순이었다.

교환장수 기준으로는 1만 원권이 3천569장(5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천 원권 1천817장(28.9%)과 5만 원권 640장(10.2%)에 이어 5천 원권은 4.1%(261장)를 차지해 한 자릿수에 그쳤다.

### 전국적으로 폐기처분 화폐 증가세

전국적으로도 화재, 부패 등의 사유로 폐기처분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폐기 처분한 손상화폐 규모와 관련, 한국은행 측은 주화 10억 원을 포함해 1조3천62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비해 15.5%(1천827억원) 늘어난 것이다.

손상화폐는 지난 2012년 상반기 9천152억 원, 그해 하반기 9천207억 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1조347억 원, 그해 하반기 1조1천792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264억 원에 달했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폐기처분한 은행권(지폐)은 만 원권이 1조54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 원권 1천350억 원, 1천 원권 1천349억 원, 5만 원권 37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폐기주화는 100원화가 5억2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0원화 3억1400만 원, 50원화 7천400만 원, 10원화 3천400만 원 순이었다.

손상된 이유는 화재로 인한 손실이 4억2천100만 원(644건),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으로 인한 부패가 2억9천800만 원(1천516건), 칼질 등에 의한 것이 5천300만 원(51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엔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4분의 3 미만에서 5분의 2 이상이면 그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화폐 환수율은 57.8% 기록

같은 기간 대구·경북지역의 화폐 환수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의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은 각각 1조6천968억 원, 9천8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폐 환수율은 57.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측은 이에 따라 7천163억 원의 화폐 발행초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화폐 발행액의 전국 비중은 11.3%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환수액은 9.5%에서 8.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폐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발행액은 1조6천92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624억 원(-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별로는 만 원권과 오천 원권, 천 원권은 각각 9.1%, 1.6%, 1.4%씩 늘어난데 반해 오만 원권은 9.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주화는 소폭의 발행 증가를 나타낸 가운데 오백 원화가 23억1천만 원(비중 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 원화 13억8천만 원(34.8%), 십 원화 1억5천만 원(3.8%), 오십 원화 1억2천만 원(3.1%) 순이었다. 주화 환수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천만 원(5%) 감소한 11억3천만 원에 그쳤다.

배은정 기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여승동 사무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시작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일반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할 때 흔히 인용하는 문구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변함 없이 이런 마음으로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승동 사무관이다. 여 사무관은 지난 1986년 10월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30년 가까이 공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1998년 경북도청 회계과 계약부서에 근무할 당시 전자입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직자로 세간에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이 초창기여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입찰을 정착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여 사무관은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위한 전자입찰제는 행정이 나아가야 할 시대적 방향이라는 판단 하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앞서 하자!’ 라는 마음으로 과감히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하여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계약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현격히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결재단계를 줄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여 사무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실무’ 라는 책을 발간하여 배포할 정도로 자기 일에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다.

남다른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다. 여 사무관은 바쁜 업무와중에도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여 행정학석사(지역개발전공)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자기계발의 노력은 사회복지과로 보직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7년 사회복지과로 보직을 옮긴 이후 관련분야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였고 마침내는 사회복지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은 최고로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몸소 실천해 주위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 역시 전반적으로 가라앉아서 침체된 분위기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승동 사무관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쌓이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 사무관은 이런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걸음씩 나아가자는 다짐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한다.

홍순대 편집위원

# (주)에코텍

## 대구 대표 첨단 영상관제업체로 급부상

국내 보안경비서비스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향토기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 대표 첨단 영상관제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주)에코텍(대표이사 이양구·사진)이 주역이다. 에코텍의 차별화 경쟁력과 경영 전략 및 향후 목표, 관련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상보안관제시스템을 진단·분석한다.



다 화재·상해·도난보험에 가입해 고객들의 자부담 최소화 노력도 함께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관제시스템 기반의 보안경비서비스는 일반 주택은 물론, 상가, 공장 등 수요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에코텍 측은 귀뿔했다. 시장 수요가 풍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차별화 경쟁력 토대로 시장점유율 지속적 확대

지난 2001년 6월 창업 성공 신화에 도전장을 내민 에코텍은 애당초 건물전문관리업체로 출발했다. 지난 2007년 KT텔레캅 협력사에 선정된 이래 영상관제기반의 국내 보안경비서비스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다. 보안경비서비스시장에 본격 진출한 것은 관련 시장 규모가 향후 급성장할 것이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보안경비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범죄 및 화재 예방 차원에서 보안경비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진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텍에 따르면 영상관제시스템 방식의 국내 보안경비 시장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무인경비업체 또한 앞 다퉈 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는 등 대기업들의 관련시장 진출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난 범죄의 상당수가 소요시간 2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이른바 '신속형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 최첨단 영상관제시스템 '온캣' 출시

에코텍의 야심작인 보안경비시스템 온캣(ON : CAT)은 기존의 무인경비업체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CTV를 접목한 최첨단 영상관제시스템으로 고안된 게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기계경비시스템의 경우 무인보안경비업체 소속 직원들이 담당해야할 고객수가 워낙 많은 탓에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첨단 영상관제시스템을 적용해 고객이 이상 신호를 인지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 영상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시스템에는 HD급 고화질 CCTV를 장착, 차량번호는 물론 범인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우위도 점하고 있다.

에코텍은 고객이 영상을 놓쳤거나 스마트폰을 꺼두었을 경우를 대비해 중앙관제실에서 확인 후 오작동인지 실제로 화재 또는 도둑이 침입한 경우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런 구도 속에 에코텍은 일반 무인경비업체에 비해 설치 및 운영비 기준으로 최대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앞세워 관련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드물게 렌털(대여)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시장 반응이 뜨거운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에코텍은 온캠 설치 후 약정기간 3년이 지나면 영상관제시스템 일체를 추가 비용발생없이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차별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에코텍의 대표적 영업전략으로 판단된다. 온캠은 현재 고정식, 네트워크형 IP 방식, 스피드 타입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고정식은 천장이나 벽면 설치 형태로, 네트워크형 IP 방식은 복수의 공간을 영상으로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스피드 방식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 범죄 및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우리나라 대표 영상관제시스템 기반의 보안서비스 업체 도약 목표

에코텍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첨단 영상관제시스템 기반의 보안서비스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 방문을 통해 기기 점검에 나서고 있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코텍은 현재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관제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6명씩 교대 근무를 통해 범죄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양구 대표이사는 “온캠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범죄 발생 제로(ZERO)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및 경쟁력 우위를 토대로 대한민국 대표 영상관제 보안서비스업체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기대 편집장



#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다.

또 지난 7월 초 방송된 KBS2 ‘추적 60분’에선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란 제목으로 당시 황산테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 군의 사연을 재조명해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등 이 사건전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황산테러 사건 피해 아동인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인 김모(51)씨가 사건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 등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고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이로써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지난 7월 7일까지였지만 이번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지되면서 최장 9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고 김태완 군은 지난 99년 5월 학원을 간다며 집을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미상의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태완 군은 이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상에서 신음하다 사건 발생 49일 만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건 당시 태완 군은 특정인을 용의자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건 범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 KBS2 ‘추적 60분’에서 해당 사건 용의자 등에 대한 태완 군의 진술 내용 등을 상세히 다루면서 검인 검거의 실마리가 풀리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방송된 KBS 2TV ‘추적 60분’에 따르면 태완 군의 목숨을 잃게 한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 진술이 있었지만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 군은 사력을 다해 용의자를 언급했고, 이를 태완 군 어머니가 녹취까지 해 경찰에 제출했지만 수사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중지 소식이 접해지자 네티즌들은 ‘공소시효 극적 중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얼른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영구미제사건에서 제외되길 바란다’, ‘수사 본격화되길 응원합니다’ 등 이를 반기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동시에 조속한 수사재개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편집국〉

#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해에 약 120억개 정도에  
13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과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 원화 강세 지속 ... 지역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울상' 원달러 환율 1천 원 대 진입 우려감 확산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지난 한해 연간 수출 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울들어선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울들어 7월까지 수출실적은 고작 5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평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한 상태다. 원화 강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원화가치는 최근들어 달러당 1천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 엔화 가치는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하면서 바이어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탓이다.

이 업체 B 대표이사는 “수출물량이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춘 상태”라면서 “원화강세로 인해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 원화 강세 지역 수출 기업 벼랑 끝 위기

A 업체처럼 최근 들어 가파르게 치솟고 있고 원화 강세 탓에 지역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원화강세현상은 연초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초순에는 달러 당 1천 원 붕괴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마저 국내 외환시장에 나돌았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기준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5원 내린 1009.2원을 기록, 울들어 고점(2월3일 달러당 1천85원) 대비 75원 이상 큰 폭 하락하며 1천원 붕괴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원화강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정 환율(달러당 1천86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손익분기점 환율(1천38원10전)에 비해서도 30원

가량 낮은 것이다. 손익분기점 이하 환율로 수출한다는 것은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손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 수출 중소기업 재산성 악화 우려

최근들어 원화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장기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치인 2천835억6천9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일일 평균 수출실적은 21억3천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평균보다 4.5%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새로 갈아치웠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 6월 기준 무역수지는 52억8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째 흑자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원화 강세 후폭풍은 고스란히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타개책도 제한적 수준에 그쳐 원화 강세에 따른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원가절감, 수출단가 조정 등 소극적 수준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면 환변동보험가입 등 외환 파생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추산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 처럼 외환파생상품 가입에 미온적인 것은 지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통화옵션파생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 상당수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통화 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중소기업만 수 천 곳을 헤아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파악하고 있다.

KIKO는 환율이 정해 놓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에 득이 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표적 통화옵션파생상품 중 하나다. 환율 변동 폭이 클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원화 강세 흐름 당분간 지속 전망

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달러 당 1천원대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석도 있다. 달러화가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의 통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여기에도 무역수지 흑자 흐름 장기화도 원화강세현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이 때문에 나온다. 원화강세 흐름이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경우 수출에 의존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DGB금융그룹 DGB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원화절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달러화 및 엔화 대비 원화 5% 절상 가정 시 대구와 경북지역 생산은 각각 0.82%와 1.02%씩 감소하고 수출 또한 3.68%, 3.62%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각각 0.25%p, 0.32%p씩 감소할 것으로 DGB경제연구소 측은 추정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섬유업을 비롯해 1차 금속업, 전 기전자업의 재산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DGB경제연구소 측은 전망하고 있다.

배은정 기자

# 경북도, 민선 6기 도정슬로건 ‘사랑중심, 경북세상’ 으로 확정

경북도가 최근 ‘사랑중심, 경북세상’을 민선 6기 도정 슬로건으로 확정지었다. 도는 이와 함께 경북도새출발위원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을 민선 6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경북,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

도는 민선 6기 도정 방향을 나타낼 도정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 도민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자체 아이디어 제안에 이어 도청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랑중심, 경북세상’을 도정 슬로건으로 확정지었다고 최근 밝혔다.

‘사랑중심 경북세상’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사람 대접받고 사람 뉘새나는 경북을 만들고,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힘들 때 마다 언제나 앞장섰던 경북이 다시 한 번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초 경북도새출발위는 경북의 새출발을 위한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10대 정책을 선정, 김관용 도지사에게 강도 높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10대 정책에는 △투자유치 30조원 및 일자리 10만개 달성 △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기관장 선임기준 개혁 △경제부지사·환동해발전본부 신설 등 일 중심 조직 개편 △경북 신미래산업 발전전략 추진으로 균형발전 기반 구축 △FTA 파고 극복을 위한 농업 정예인력 양성 및 수출농업 육성 △문화융성 선도와 생활 속의 문화체감 △도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각없는 경북형 복지 플랜 기동과 민생행복 대책 추진 △안전한 경북을 위한 재난대응 실질훈련 강화 및 도민안전 의식 개혁 △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대구·경북 상생발전 도모 △독도 영유권 수호·북극항로 개척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대응전략 구체화 등이 핵심이다.

## 지역 균형발전 공동선언문 발표

도는 아울러 300만 도민의 굳은 의지를 담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 촉구 선언문도 최근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고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 제정, 지방 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 소비세 확충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를 명시화했다. 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구체적 역할 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분권포럼 설치 운영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 을 통해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일종의 제안성 성격의 발표문으로 비쳐진다.

#### 4대 권역별 특화 산업벨트 구축

도는 이와 함께 4대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미래 신산업 발전구상으로 K-1(Korea 넘버원)프로젝트도 최근 내놨다.

도청이전으로 23개 시군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반도의 경제권 형성의 촉매제로서 중부경제권과 남부경제권을 융합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국토발전 축으로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 도청신도시로 연계되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을 조성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K-1프로젝트는 △동해안 해양신산업벨트 △북부권 미래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 스마트융복합벨트 △남부권 창의지식 서비스벨트 등 4대 권역별 11대 전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동해안에 대해선 국립자원개발 산업진흥원과 환동해 해외자원 기지 등을 조성해 동해안을 국가자원개발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형산강과 오십천, 왕피천 등 동해안 3대 강과 동해안 항구를 문화와 생태,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메카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동해안 첨단과학 신산업특구 조성을 통해 고출력 제이저산업과 암조기진단산업, 해양안전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북부권은 미래 생명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농생명산업집적과 인구유입을 견인하고 건강기능식품특화단지, 증가·사찰·발효음식 특구 등 국민건강 식품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백두대간 레포츠벨트와 스포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스포츠관광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부권은 낙동수향 휴벨트의 경우 POST 낙동강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탐방 뱃길복원, 낙동강 뱃놀이 드림랜드 등을 조성하고 추풍령 혁신산업 클러스터는 국립중자과학단지, 도로교통안전기술 산업화 등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성장확산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낙동 테크노밸리는 5G 통신, 3D 프린팅 등 최근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ICT 분야 집적화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부권은 창의지식 R&D 특구와 청년문화창의지구, 미(美)뷰티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세계적 창의지식서비스지구로 특화 발전시키고 영천의 보잉사와 군수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신항공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엔 제안된 10대 정책에 대해선 경북도미래전략기획단 등 관련 부서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민선 6기 10대 정책에 대해선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분야별 진행 과정에 대해선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려겠다"고 밝혔다.

백재호 편집위원

# 대구 거주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 거주 외국인 주민은 1년 전(3만2천522명)에 비해 2천454명 늘어난 3만4천976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인구(250만1천588명)의 1.4%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총 외국인 주민(156만9천470명)대비로는 2.2%를 차지하는 규모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체류 목적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외국 국적 동포와 혼인귀화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의 증가폭은 각각 16.9%, 9.1%, 8.1%를 기록, 근로자(6.5%), 결혼 이민자(4.8%), 유학생(0.8%) 증가폭을 상회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1만2천310명(35%)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7천210명(20%), 남부아시아 2천898명(8%), 필리핀 2천105명(6%), 미국 1천994명(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중국인이 이처럼 많은 것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 국적 동포 신분으로 입국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대구시는 전했다.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혼인 귀화자와 이민자 자녀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대구시는 덧붙였다.

거주지별로는 달서구 신당동 3천286명, 월성2동 1천725명, 달성군 논공읍 1천238명, 논공읍 공단출장소 902명, 구지면 832명, 북구 산격1동 873명, 서구 비산7동 843명으로 나타나, 상업현장 밀집 지역에 외국인 주민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험 및 언어소통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구생활체험단은 외국인 주민 80여 명이 참가해 한 달에 한 차례씩 총 5회에 걸쳐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국악공연 등을 체험하는 동시에 거주 불편사항과 시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글로벌토크 등을 주제로 삼아 외국인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언어소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는 대구생활 가이드북, 생활전화번호부 등을 제작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지원기관에 집중 배부하고 있다. 특히 대구생활 가이드북의 반응이 좋은 것을 감안해 내용을 보완해 올 하반기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글의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선 도시가스 고지서 안내문과 자동차세 고지서 결봉투에 영어와 중국어로 해당 고지서임을 알려주고 있는 등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외국인 주민 증가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정현 편집위원

# 군위 청정자연을 담은 건강한 우리 농산물

우리 몸을 이롭게, 가족의 건강을 이롭게 -  
싱그러운 자연으로 가득 채운 건강한 먹거리, e로운!  
군위의 맑은 물과 공기가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 로운<sup>®</sup>

자연가득, 생명가득

# 대구·경북 사과 고장 명성 잃나 재배면적 감소세 확산

최근들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대구·경북의 농작물 재배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중에선 사과와 배가 대표적이다. 위도가 높은 강원도 등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대구·경북의 재배면적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감자는 시세에 따라 재배농가가 '늘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리도 전반적인 재배면적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핸 농협 등과 계약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소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북 사과 재배면적 4년 연속 감소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의 1만8천981ha에 비해 0.5%(92ha) 감소한 1만8천889ha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1만9천640ha에서 2011년 1만9천560ha, 2012년 1만9천98ha, 2013년 1만8천981ha에 이어 올핸 1만8천889ha를 기록, 지난 2010년 이래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이에 앞서 지난 1995년 3만4천770ha를 기록한 이후 1996년부터는 2만여ha대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들어선 1만여ha대까지 다시 감소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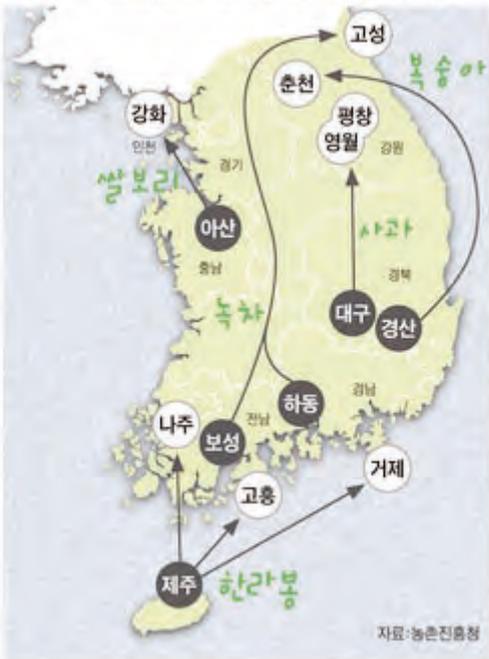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지난 2005년부터 몇 년간 재배면적이 소폭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감소 폭이 확대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과재배면적이 이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온난화 영향으로 재배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강원도의 사과재배면적은 522ha를 기록, 7년전인 2007년의 114ha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래 7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농촌사회의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손 부족 탓에 사과 재배가 불가능한 노후목이 늘어나면서

**온난화로 인한 전국 농작물 재배지 북상 현황**



신규재배 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재배면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 재배면적도 큰 폭 감소**

대구·경북은 아울러 배 재배면적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의 배 재배면적은 1천544ha로, 지난 2000년(4천657ha) 이래 14년 연속 감소 추세를 기록 중에 있다.

배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복숭아와 자두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영향으로 재배포기 농가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통계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배의 대체 과수로 평가받고 있는 복숭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재배면적은 지난해 7천402ha에서 올해 8천133ha로 확대됐으며, 이 기간 자두 재배면적도 4천809ha에서 4천850ha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 재배면적 증가세 Vs 감자는 대폭 감소**

감자와 보리는 시세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산지 가격 약세를 보인 감자는 올해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반면 보리는 농협 등과 계약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안정적 판로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협은 올해 지역 보리 재배농가와 계약을 맺고 쌀보리의 경우 1등급 40kg 한 포 당 4만2천원에 수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의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 2012년 807ha에서 지난해 1천290ha에 이어 올해 1천376ha까지 확대됐다.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은 가격 안정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통계청 측은 밝혔다.

반면 산지 가격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감자는 올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대구·경북의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해 4천309ha에 비해 29.5%(1천270ha) 감소한 3천39ha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영락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은 “감자 재배농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약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가격 약세를 전망한 농가에서 대체 작물 재배로 눈을 돌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8명 진폐증 확인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진폐증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 2천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조사 결과, 직업력 없는 환자 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28명을 최종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피해 주민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직업력 없는 주민 중 진폐증 환자 처음 발견

환경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폐증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71년 조성된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 및 아스콘·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실제로 주민건강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실태 점검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9월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와 대구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 측에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청원에 나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조사 대상 주민에 대해선 호흡기계 검진과 암·사망 및 병원이용 자료를 분석하고 대기확산 모델링에 이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한편 침적먼지 성분 분석에 나서는 등 환경영향조사를 병행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중 28명이 진폐증으로 진단됐으며, 이 중 8명(0.27%)은 분진 관련 직업

력이 없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연료단지 인근 지역인 대구시 동구 안심 1~4동에 거주하는 2천98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건강상태와 흉부 엑스레이(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의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다.

진폐증이란 탄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석탄가루 등이 장기간 폐 조직에 쌓여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장기방치시 기관지염이나 폐결핵 등의 치명적 합병증이 수반된다

## 분진 농도 등도 높게 나와

일대 분진 농도 또한 대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안심연료단지 일대 분진은 석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조사지역 내 4개 지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



의 경우, 계절별로 다소 편차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8월과 올 2월 평균농도는 각각  $47.5\mu\text{g}/\text{m}^3$ ,  $54.0\mu\text{g}/\text{m}^3$ 를 나타내 여름보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심연료단지에서 남서 방면으로 1km쯤 떨어진 울하동 대기측정소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50\mu\text{g}/\text{m}^3$ 를 초과하는 등 대구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조사지역 500m 이내 주거지역에 쌓인 먼지에 대한 연료단지 내 석탄 성분의 기여율을 조사한 결과, 탄소·질소 동위원소 분석에서 평균 24.0%를, 납 동위원소 분석에서도 33.9%를 기록해 연료단지 내 사용된 석탄 연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료단지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주민의 경우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연료단지로부터 500m~1km 바깥쪽 거주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조사지역에서 천식으로 인한 병원이용률은 대구시 전체와 동구에 비해 각각 1.2배, 1.5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구시는 동구 안심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이번에 발견된 환경성 질환자로 판정된 주민에 대해선 동구청과 함께 우선적으로 건강 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직업성 진폐증으로 확인된 8명에 대해선 건강진료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산재 관련 기관과 연계해 조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과 방문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연탄·레미콘·아스콘공장 등 미세먼지 유발 가능 업체에 대해선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시 및 관리에 나

서기로 했다.

특히 연료단지 내 공장으로부터 인접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이해와 역량을 모아 근원적인 해결책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선 연료단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일대 주민들, 집단 소송 움직임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청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료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진폐증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소송전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산먼지대책위 측은 “이른 시일 내 소송에 돌입하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소송 판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아울러 진폐증 환자 외에 호흡기계통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도 피해보상 소송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이번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참여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년 조성된 안심연료단지에는 6개 공장이 연탄을 생산해오다 현재 3개 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각종 환경문제 유발은 물론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산업시설로 부각되면서 주민들과 장기 갈등을 빚고 있다.

배은정 기자

# 생고기 · 찜요리 전문점 ‘코뚜레’

최고의 생고기 · 육회 맛 선배  
흑태찜 · 코다리찜도  
추천 메뉴로 인기



본보는 천편일률적인 음식점 정보를 소개하는데서 벗어나 고객과 독자의 입장, 그리고 맛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음식명가(飲食名家)를 연재하고 있다.

음식명가는 대구 · 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활용해 선정하고 있다. 시설과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외형적인 단서인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이번 평가 결과, 경영저널 음식명가 6호에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생고기 · 찜요리 전문점 ‘코뚜레’가 영광을 안았다.



‘코뚜레’의 메인 메뉴인 생고기 맛이 뛰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좋은 고기’를 고집하는데 있다. 생고기용 소고기는 경북 고령에서 사육된 최고등급의 한우 우둔살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신선도 확보를 위해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문해 손님상을 차리다보니 그 맛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집의 육회도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즐겁즐거운 식감에 젓가락이 자꾸 갈뿐만 아니라 배, 미나리 등과 함께 어우러



진 깊은 맛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통상적으로 여느 생고기집의 경우 신선도가 다소 떨어지는 한우 우둔살을 육회용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코뚜레'에서는 생고기 용도의 우둔살로 육회를 만들어 손님상을 차리고 있다. 신선도가 뛰어난 육회 본연의 맛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주인장의 배려가 묻어난다.

손님상에 차려지는 밑반찬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가지수만 무려 13~14종에 달한다. 계절별 식재료를 이용해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단다. 예컨대 봄에는 미나리, 여름에는 해파리냉채, 가을엔 도토리묵, 겨울엔 과메기와 생굴 등을 맛 볼 수 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20년 이상의 베테랑 요리사 일색이다. 하나같이 손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밑반찬 리필 주문도 끊이지 않는단다.

'코뚜레'를 찾았다면 찜요리도 반드시 맛봐야할 추천 메뉴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생고기 전문점이지만 의외로 찜요리를 찾는 손님도 많다는 데 있다.

'코뚜레'에서는 매콤한 맛이 일품인 흑태찜과 코다리찜을 생고기, 육회와 함께 메인 메뉴로 선보이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최상급 흑태와 코다리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파, 감자 등 부재료 일체를 국내산만으로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

손님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 먹거리를 대접하겠다는 주인장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로 찜요리는 동창회, 단체 회식 등 각종 모임 손님들이 즐겨 찾는단다. 식사용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과 함께 먹어도 좋고, 아예 애주가라면 술안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란다.

'코뚜레'는 생고기전문점 치고는 꽤 넓은 130여석 수용 규모의 홀과 방으로 단장돼 있다. 인테리어 또한 세련미를 자아낸다. 널찍한 주차공간은 또 다른 자랑거리 중 하나다.

눈대중으로 대략 661㎡(200평)는 족히 넘어 보이는 주차장을 마련해 손님들의 주차 편의를 돕고 있다. 여기에서 식당 정문 바로 옆에 마련돼 있는 작은 연못에는 분수대를 설치해 이색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연못에는 붕어 등 물고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코뚜레 김종숙 대표(46·여)는 식도락가들이 인정하는 대구 제일의 생고기·찜요리 전문점을 만들겠다는 게 작은 소망이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평화의 땅 칠곡으로! 희망의 꿈 미래로!



# 제2회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2th Nakdong River World Peace  
Culture Festival

2014. **9. 25** ~ **9. 28** (4일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

주 최  경상북도  칠곡군  
주 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추진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54-979-6106~08



<http://www.nakdongriver-peacefestival.or.kr>  
제2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의에게 듣는다 일광 화상과 광노화



과도한 노출은 홍반이나 화상에서부터 광점축 피부염, 일광 두드러기, 피부색소 침착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만성이 되면 일광노화(주름살, 모세혈관 확장증)나 검버섯,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불볕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 피부는 혹사당하기 일쑤다. 햇볕은 밝음과 따뜻함을 주는 인간생존의 필수요소다.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등 그 이로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듯 태양 빛도 '과유불급'이다. 과도한 노출은 홍반이나 화상에서부터 광점축 피부염, 일광 두드러기, 피부색소 침착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만성이 되면 일광노화(주름살, 모세혈관 확장증)나 검버섯,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백내장이나 면역기능 장애와도 관련된다. 만만하게 볼 대상이 결코 아니다

## 근본적으로 햇볕 차단

강한 햇볕, 즉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광화상이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햇빛에 30분 정도만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일광화상은 처음에는 통증과 함께 붉게 부어 올랐다가 수포가 생기고 이어서 가려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일광 화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도별 증감 편차는 있으나 진료인원은 연 평균 1만5천691명, 총진료비는 연평균 약 3억7천만원 수준이었다. 일광 화상 진료 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7~8월이 다른 월의 평균 진료인원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 20~30대의 젊은층도 미용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햇빛에 노출시켜 타 연령대보다 일광 화상 진료 인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복기 올포스킨 대표원장은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예년 같은 7~8월에 발생하던 일광화상 환자가 올해는 5월부터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광화상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 원장은 선 크림도 효과적이지만 근원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하더라도 챙이 20cm 이상인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을 준비한다. 특히 햇빛에 과민증상을 보이거나 여드름, 단순포진,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이들이라면 자외선 노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에 남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검버섯, 기미, 잡티, 노인성반점 등이 생기고 피부노화가 촉진된다.

일광화상을 막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일, 야채, 녹차 등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과일 일을 갈아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C가 피부에 흡수되지는 않는다.

###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이렇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자외선 차단지수(SPF)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15~30이지만 최근엔 40, 60, 심지어 100까지 나왔다. 가장 큰 오해는 SPF 수치가 두 배 높으면 그만큼 오래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하지만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자외선 차단 제품은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한다.

SPF 수치가 두 배이면 효과도 그럴까. 물론 아니다. SPF 15는 자외선 B를 92%, SPF 30은 96.7%, SPF 40은 97.5% 정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 외출 땐 15, 레저 활동엔 30이면 충분하다. 바르는 양도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피부 1cm<sup>2</sup>에 2mg을 발라야 한다.

하지만 권장량의 절반도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SPF 표시만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B만 차단함을 알리는 것이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표시인 PA가 있는지도 확인하자. PA는 지수가 아닌 ‘+’로 표기되는데,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한다.

또 광과민증이나 여드름, 단순포진,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부 관리에 관심이 적다. 맨 얼굴로 나서거나 로션 정도 바르고 한낮에 나다니기 일쑤다. 민 원장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에 남여가 따로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외선을 과다하게 노출되면 검버섯, 기미 등이 생기고 피부노화 뿐 아니라 피부암도 생길 수 있다. 최근 한국남성들의 피부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는 남자들도 이전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새 젊은 남성 피부암 환자가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피부과학회가 전국 20개 대학병원에서 자외선과 관련 있는 검버섯, 기미, 피부암으로 진단된 환자 1만9천339명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젊은 층에서 검버섯은 390명에서 541명으로 1.4배, 피부암은 27명에서 103명으로 3.8배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남성에서 피부암 환자가 9명에서 46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검버섯은 2배, 기미는 1.4배, 피부암은 2.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원장은 “골프, 등산 등 야외나 일상 활동 시에 자외선에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의 피부암 등 광노화 질환의 증가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매일 1시간 이상 자외선에 노출되는 직업이라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야 일광화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권했다.

도움말 | 민복기 올포스킨 대표원장

# 상생기금 갈등 非수도권 지자체 판정승... 지방재정 숨통



지역상생발전기금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미출연한 648억 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인용 결정한 주문을 최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시도에서 지방소비세 35%(10년간 매년 약 3천억 원 이상)를 출연하기로 전 시도가 합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금출연 규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총액규모 3천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0년 1천497억 원에 이어 2011년 1천587억 원을 납부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소비세의 35%인 1천644억 원 중 1천319억 원만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내야 할 1천740억 원 중 1천417억 원만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방소비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상생발전기금 추진 당시 10년간 약 3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35%로 정했지만 매년 수도권 지방

소비세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과 달리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서울시가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월 안행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기금법 시행령에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시도가 지방소비세의 35%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으며, 더욱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문으로 상호 간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서울시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법령 준수를 요구했다.

분쟁을 접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월부터 4차에 걸쳐 조정 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와 13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위원회 이행명령 후 대집행을 하게 된다. 만약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서울시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는데는 무엇보다 대구시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중앙부처에 발품을 팔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는 한편, 상생기금 도입 취지와 대응 논리를 만들어 13개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일반재원 용도인 상생발전기금 미수령액 137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몽영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생발전기금이 제대로 작동돼 진정한 상생(相生)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량 편집위원

휴양과 레저의 도시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의 특별한 체험

# 체험관광은 안동으로



안동국제 **레저** 페스티벌  
2014  
9.26 ~ 10.5

# 한·중 FTA 협상 급물살 양국 연내 타결 목표로 실무진 협상 속도

## 한·중 FT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실무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 주석은 1박2일 일정으로 지난 7월3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주석은 이번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FTA 연내 타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양국의 주요 매체는 반응하고 있다. 양국 FTA 실무진은 이에 따라 지난 7월14일 첫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중 FTA 연내 타결 기대감은 무르익고 있다.

## 한중 FTA 협상 속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 및 교역국으로 급부상 한 상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수입액은 각각 1천342억·864억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4.1%·1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한중 FTA 정식 발효 시 양국 간 수출입 물량 급증에 따른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국의 교역규모와 산업구조의 동질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산업계 안팎에선 이에 따라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면서 농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진단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측에선 이를 경계하는 눈치다.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측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중 FTA는 대구경북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북은 농업이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한·중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일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 양국 FTA협상단 간 실무 협상도 탄력을 받고 있다.

양국의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사전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조율한데 이어 지난 7월18일까지 대구에서 실무시간 협의를 이어왔다.

최대 관건인 상품 시장을 둘러싼 양허 범위를 두고 양국 협상단은 팽팽한 줄 달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북농업 큰 피해 우려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당장 경북의 농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값싼 중국 농산물 범람 탓에 농가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경북은 농가인구 전국 1위는 물론 한우를 비롯한 고추, 사과 등에서 전국 1위 농작물만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분야피해 규모는 한·미, 한·EU FTA의 2배 이상 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역시 도내 농가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타결 이후 복숭아와 사과, 자두, 포도, 참외 재배 농가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 감, 마늘, 양파, 고추, 수박, 토마토, 딸기 등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축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한우, 돼지, 닭 사육농가의 피해도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중 FTA 발효 시 경북지역 농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측은 현재 우리나라에 농축산물 품목의 개방 확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농민 반발도 확산

한·중 실무진 간 FTA 협상이 이처럼 속도를 내자 농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농업인 4천여명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4일 대구 엑스코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정부 측에 고강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를 기반으로 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우리 농업과 농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선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농민들의 반발은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중 FTA에 이어 쌀시장 완전 개방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농민단체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용준 편집위원

## 구미시, 풍수해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구미시는 여름철 기습폭우나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시 교통체계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사전점검 및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대상물을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정비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전기사업법에 기초해 신호등 전기설비 정기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누전 등의 위험에 노출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설 공사 등에 대한 긴급사항은 3일 이내, 이 외에는 즉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에 나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용직 구미시 교통시설계장은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 안전시설물인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의 파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지보수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 지방자치단체 최초 4년 연속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



대구 중구청은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대구 진골목 개선사업’으로 특별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 4년 연속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중구는 대구 근대골목의 중심지인 진골목 주변 간판을 옛날 분위기의 간판으로 바꾸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00년의 역사와 문화로 되살리는 근대 역사문화 경관 조성사업’으로 우수상, 2012년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지난해에도 ‘역사의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의 여행, 종로·진골목개선사업’으로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지역경관 향상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우수 경관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해 (사)한국도시계획학회와 (사)한국경관학회,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2011년부터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더 많은 선진사례와 정보를 접목해 도심경관을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도심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군,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울진군은 종합복지회관회의실에서 울진군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요원, 고등학교 보건교사,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가족 및 이웃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현장응급처치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조주현 울진군보건소장은 “앞으로 울진소방서 119응급구조사와 연계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새 천년  
경북의 혼을 담아  
新 역사의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신도시'

새롭게 열리는 옹도 경북, 새천년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http://www.kpar.kr)



**주요 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0길(옥산동)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